

## 도시의 일상

## The Everyday of a City

고성희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by Ko Seong-Hee

## 中都 - 여기가 허리

## 1) 공동생활권

「Looking Into Cities」에서 저자는 도시란 땅(Lots), 길(Paths), 건물(Buildings)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라고 얘기하는 경우 사람 많고, 집 많고, 차 많은 거리를 떠올리는 만큼 넓고 밀도도 높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전은 엄연한 도시이고, 도시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허리에 들어있는 문자 그대로 중추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명칭에서 짐작되는 바대로 크다는 뜻의 태전(太田)이 한밭이라고 불린 바 있으며 한밭이라는 곳의 원래 위치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원동, 대흥동을 잇는 넓은 들이었거나 태평동 일대가 아니었을까 추측하여 볼 수 있다.<sup>1)</sup>

1990년 이래로 그 행정상의 면적은 537.25km<sup>2</sup>이고, 인구는 130만을 웃돈다. 서남쪽으로는 호남지방, 동남쪽으로는 충북의 남부를 거쳐 영남지방, 남쪽으로는 한반도 남부의 중심부를 뚫고 남해지방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대전직할시를 지칭하던 여러 가지 명칭중 노사지현(일명 노사지기현)은 대전, 진현, 두계, 연산, 부여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는데, 생활권역으로 봐도 현재의 마이카시대에는 더욱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다반사이다. 상권이나 주거권을 대전과 인근도시를 두 거점으로 하여 넘나드는 일이 많은 것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을 떠나 오래된 습관처럼 행해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 2) 입도(入都)의 다감(多感)

대전의 공동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들고나는 길의 다양함과 용이함이다. 서울에서 오는 경우 대전역은 이 도시의 입구이자 출구이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를 대전역 광장앞의 시계탑에서 만나 부산행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소이고,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 뺨뺨을 쳐놓고 기다림을 갖는 장소가 대전역 광장이다. 서울에서 오는 동안 수원, 천안을 거쳐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며 편입된 대덕구가 된 회덕역을 처음으로 이미 대전을 보고 들어온 것이다.

대전에 접근하는 길은 많다. 도시에 접근하는 과거의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역이나 터미널이라면 '문'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중앙로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대전역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상도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구, 유등천을 경계로 동서를 중구와 서구로 나뉘는데, 동문은 동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이고, 서문은 서대전역과 유등천변의 서부터미널이다. 이외에도 옛날부터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 대덕군내에 예속된 유성을 통해 공주 등지로 가는 문이 있다. 그 문들 하나하나가 주는 입도(入都)의 감(感)은 제각기 다르다.

공주에서 금강을 따라 유성을 통해서 대전에 오는 길은 한쪽에 강과 한쪽에 산을 끼고 올 수 있고, 옛성들의 자리를 추적하며 국도로 진입하는 연산, 두계로 오는 길은 구비구비 긴장과 완화를 느끼며 낮은 계곡같은 길로 갈 수 있다. 정공법(正攻法)으로 오는 대전역과 고속터미널을 통하는 길은 국토의 최단거리를 경험하며 온다.

최근 둔산에 3청사가 업무를 시작하며 이 문들은 더욱 출입이 빈번해졌다. 가출이나 방황이 아니고, 교통이라는 것이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업무와 각각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sup>2)</sup> 외부에서 내부로 혹은 내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로 교통이 일어난다.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임을 실감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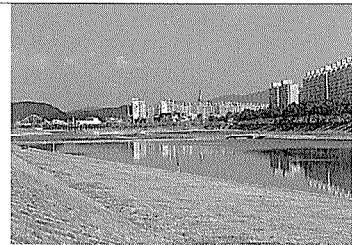
1) 대전직할시, 대전의 유래와 연혁, 1995  
2) 황기원, 都市樂 맛보기, 서울대 출판부, 1998



대전시내 전경(보문산)



대전역



대전 강천

## 모여드는 곳

### 1) 대전의 등뼈 중앙로

대전의 도심은 격자형 체계이다. 대전의 중심 지구와 그것의 명확한 격자형 도시구조는 1932년 도청 이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1935년 시경계의 확장을 전후로 하여 해방이전에 대체로 완성된 것이다. 지금의 대전은 자생적으로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05년의 경부선 개통 그리고 1914년의 호남선 개통을 계기로 인위적으로 계획되어진 도시이다.<sup>3)</sup> 그 질서는 도심주변에 있는 기존의 가로체계와 섞이어 수많은 지름길을 찾는 묘미를 주기도 한다. 간혹 그 접점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먼저 대전역앞에 펼쳐있는 중앙로로 가다가 돌아서서 대전역을 바라보면 일제시대의 대전역사의 모습과 대조적임을 발견한다. 평평한 지붕에 마치 정착되어 있는 기차처럼 길게,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서는 좀 낮게 놓여 있다. 과거의 대전역사 그 뒤로 보이는 자연경관이 마치 대전역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대전시의 중심이 동으로는 계족산, 서로는 구봉산·산장산·계룡산, 남으로는 보문산·식장산에 에워싸이고 있는 분지라는 공간구조의 한 단편을 보는 듯하다. 중앙로는 몇 년전 지하도가 생긴 이래로 대전시민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상에서나 지하도에서나 사람과 삶이 부대끼는 곳이다. 이 길을 따라 홍명사가까지 걷다보면 간단하게 사고 파는 일들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보도에서 진잔한 볼거리가 복잡함과 활기를 더해 주고 있다. 지하도에 있는 상가는 지상의 좁고 길게 횡방향으로 썰린 땅모양만큼이나 조금이라도 많은 수의 전면을 가지려는 상가가 빼곡하다. 이 도청까지의 중앙로축을 가로지르는 대전도심의 중요한 가로축이 4개가 있다. 여기서 주로 만나고 기다리고, 모이는 일들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 2) 중앙로의 가로축: 거리 들여다보기

#### 제1가로축: 동백 사거리

위계상으로 그 첫 번째 가로축은 동양백화점

사거리이다. 대전에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속에 있는 제1 약속장소이다. 동양백화점 앞에서는 중앙로의 축방향 정면에서나 가로방향의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도심내부에서의 가장 쉬운 약속장소이다. 그러한 이유가 단지 동양백화점 건물 하나의 압도적인 볼륨과 용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장소는 네거리의 모퉁이땅에 동양백화점이라는 상중심(商中心)과 건너편의 한일은행의 석조건물, 과거의 상공회의소지리에 들어선 새건물과 신축중인 고층의 건물로 네 모서리가 건물로 단단히 채워 있다. 또한 이 곳은 지적도상에서 중앙로의 축이 얼마간 꺾이면서 하나의 모멘트가 일어나기도 하며 횡방향의 가로가 중앙로의 좌우를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점이다.

이 상황은 지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분수대와 벤치가 있어 지상의 장소성과 기억이 그대로 지하로도 내려가 연속성을 가진다. 이 곳 정면의 벤치는 세워질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몇 년전 입구 양편에 앉을 자리가 마련된 것은 하나의 장치이지만 길과 사람, 건물과 외부공간이 시간과 함께 그 잠재력을 알아낸 하나의 예이다.

#### 제2가로축: 목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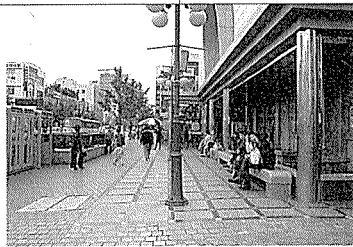
그러나 큰 볼 일이 있지 않는 한 대전의 중앙로를 따라가다 보면 곧바로 그 첫 번째 결절점까지 아무 방해없이 가기에는 여러 가지의 표정을 한 동서 가로축의 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좁고 높은 정면이 반복되며 중앙로의 연속적인 가로면을 형성하고 있는 스크린이 갑자기 단절된다. 그 극점에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동양쇼핑몰(구 대전데파트)과 홍명사가 가란히 서 있다.

홍명사가 후면에는 삶의 생생한 현장인 중앙시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나무와 분수대, 앉을 자리가 있어 휴식처가 되고 있는 목척공원이 있다. 대전역 광장이 공식적인 집회(예를 들어 선거철 유세)가 일어나는데 비해 이 곳은 벽과 같은 두 건물의 앞뒤를 연결하는 통행로이자 머무는 휴식의 역할이 더 크다. 동양쇼핑몰앞에서 간혹 이벤트가 일어나긴 하지만 공간의 규모도 대전역 광장보다 작고 선적이며 다분히 상

3) 송인호, 대전-격자형 도시구조와 건축, 건축문화 8907.



동백 네거리



동백 앞 벤치



홍명·중앙 분리된 모습

업적이다. 거꾸로 도청쪽에서 대전역으로 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 두 건물은 대전역사의 상징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지나친 높이가 중앙로상에서의 이 지점에 대한 도시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자의적이다. 다분히 목적공원이라는 공공공간으로 인해 육중한 건물의 길이가 노출되어 장벽처럼 앞뒤를 가로막는다. 대전역까지의 축이 여기서 한 번 차단된다.

묘하게도 중앙로 하부의 지하도가 여기서 끝났다 다시 이어진다. 그 뒤로 기능적인 연결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로축은 대전천의 상부이기도 하며, 하상주차장이라는 쓰임과 더불어 중요한 가로축임에 틀림없다. 밤에도 이 가로축을 따라 많은 도시의 일상이 연속된다. 벤치에 앉아 낮게 흐르는 천을 바라보기도 하고 삼삼오오 담소를 즐길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 제3가로축: 사라진 장소성 대전극장통

또 하나의 가로축은 그 입구가 시각적으로 단서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과 기억속의 대전극장통이다. 이 길은 주로 4~5층의 건물로 이루어졌고, 1층은 고급부띠끄, 2~3층은 음식점과 커피숍, 뷰티숍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길의 서쪽 마지막 부분에는 길에 걸맞는 아담한 규모의 대전극장이 있었다.

현란한 거리를 걸어오다가 영상으로 도심에서의 활보를 끝마치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던 곳이다. 영화를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영화평과 함께 담소를 나눈 뒤 중앙로까지 걸어나오며 버스번호판을 찾을 때까지는 그 여운을 가질 수 있는 거리였다. 정취있던 장소가 갑자기 '대전코야'라는 이름을 내걸고 거대한 건물로 둔갑하였다. 끝까지 밝기만 한 거리, 끝에서 더 올라야 하는 맺음이 부담스럽다.

도시가 안고가는 '변화와 발전'이라는 통제불가능한 갈등이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이 거리와 연결되는 격자의 균질적인 체계안에 도심지역이 펼쳐진다. 이 길로부터 은행동 일대의 이른 바 변화가라 일컫는 유락동, 성심당 골목이 모두 연결된다.

### 제4가로축: 으능정이 문화거리

중앙로로 나와 도청쪽으로 한 블록 더 올라가

면 고급스러운 석조건물(캠브리지)과 안이 완전히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이안경원 건물이 조금 넉넉하게 사람을 반긴다. 이 가로축이 '으능정이 문화거리'이다. 이 곳은 1996년 11월말에 문화의 거리로 제정되어, 차없는 거리가 되었다. 이 거리의 표정은 중앙로 어느 부분보다 특히 밤에 더 밝아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파가 물려든다. 물리적인 실체를 파악하면 길의 폭이 일단 대전극장통 보다 넓다.

공교롭게도 이 거리의 초입에 이안경원이 들어서 있는데 건물의 용도상 보여주기 위해 열어야 함이 필요했겠지만 거리의 중요한 모서리가 투명해 낮이나 밤이나 광원과 같은 역할을 건물 자체가 하고 있다. 좌우 모퉁이의 대조적인 물리적 시작이 흥미롭다. 유난히 그 입구에 전화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여들게 되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활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공연도 수용하고 있어 이 거리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세대교체가 되어 새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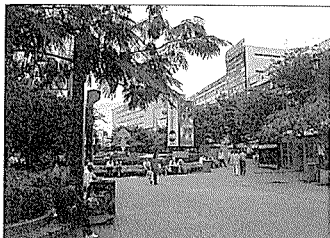
차가 안 다니므로 정해진 선의 보도만으로 제한되는 보행의 부자유스러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모이기 위한 연속적인 공간적 배려나 이 길만이 갖는 입면상의 특성이나 어느 정도의 변화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건축적 조치가 부족하다. 이 거리는 서울의 동송동이라기보다는 명동이다.

### 확장되는 일상

#### 1) 위에서 보기

대사동 보문산에 올라가면 대전의 시가가 내려다 보인다.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전망이 좋고, 놀이기구도 있어 보문관광단지로도 불리는 이곳은 도시민의 약속터로도 애용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대전의 장점이다.

구불구불 올라가는 길은 충분히 도시를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올라가는 길 입구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지의 기념품들로 즐비하다. 올라가서 만나는 최근 세워진 전망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전망을



홍명공원



홍명시장



대전 극장통

제한함이 아니다. 하지만 대전시 유래와 연혁에 “보문산은 셋 골에 원각사, 관음사, 석굴암이 있고, 1965년 4월에 중봉에다 보문대를 건립하였는데 이 곳에 올라서서 사방을 바라보면 동쪽에 식장산, 북쪽에 계족산, 서쪽에 계룡산이 높이 솟아 있음을 볼 수 있고, 시내를 내려다 보면 북쪽에 대전천이, 서쪽에 유등천이 흐르고 이 두 천(川)이 갑천에 합류되어 다시 북쪽으로 금강과 합류하는 모습을 관망케 한다.”라고 나타나 있듯이 대전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멀리 둔산의 확장이 주목할 만하다.

## 2) 이동하는 중심

갑천은 허허벌판이었던 둔산에 각종 쇼핑몰과 행정기관건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대전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시 가까이에서 한적함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아침에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과 저녁과 주말에는 천렵을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

원래 대전의 중심은 은행동 일대였다. 은행동을 중심으로 소위 ‘물 좋은 곳’이 십대에 맞는 거리가 되면서 여러 세대를 걷고 싶게 하는 거리가 중구청앞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더니, 대규모의 주거지와 함께 둔산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 각종 참고형 매장과 동양타임월드 등이 일상의 친근한 공간이 되면서 중심의 이동에 한 몫 더하고 있다. 행정적인 확장뿐 아니라 거대한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도시는 늘상 개발축을 중심으로 신구가 충돌하며 때론 아픔을 감수하고 때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 둔산의 발전이 단순한 인구집중을 유발하여 처음에 겪었던 주거지의 바람 한 점 없는 미기후를 형성해 일상적인 주거내의 삶을 질적 저하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 고층의 아파트에 비하여 조경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다. 급조된 도시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월평동 일대의 고단위 아파트군은 대전에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월평동과 도룡동을 잇는 대덕대교와 오정동과 둔산동을 잇는 한밭대교는 그 다리의 폭과 길이가 건축적인기는 의심스러우나, 대전내에서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충시켜주는 거리(距離)를 갖게 한다.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규모확장에 비해 그 계획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엑스포와 대덕연구단지 일대는 대덕대교와 한밭대교의 연결과 더불어 대전의 확장성과 새로운 디스트릭트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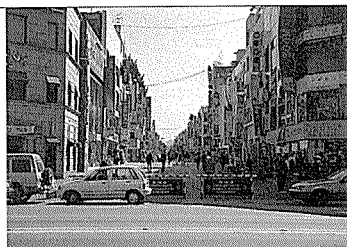
엑스포공원내의 한빛타워는 맛있는 둔산의 밤 하늘에 시각적 정위감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유성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의 정위를 알리는 빛보다 훨씬 건축적이다.

확장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전이 저변확대되어 넓은 도시안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산책과 휴양을 할 수 있는 자연을 맛볼 수 있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본다. 이미 이 도시는 도심과 주변에 또 중앙로와 서대전 사거리 등에 아이덴티티가 있는 외부공간이 충분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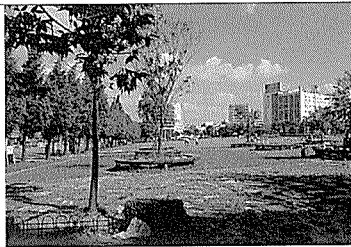
주말에 대전까지 혹은 논길을 따라 유성쪽의 시골생활을 잠시 접할 수 있는 확장성이 지금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성의 온천욕으로 생겨난 휴양적 분위기와 둔산의 행정중심, 대전 본래 시가의 활발함이 각각의 개성과 통일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어느 도시라도 동시대인들이 갖는 일상은 새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요소의 수와 관계없이 도달하는 ‘잠소성’은 같은 일상이라도 물리적인 실체와의 관계속에 유의미(有意味)한 것이 된다.

대전이 가지는 중도성과 확장성이 길을 잃지 않으면서 옛도시가 갖던 질서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대물림되어 “작위의 상처”가 적게 대전만이 갖는 격자형구조와 기존구조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백제인이 가졌던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세련되되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모습이 도시의 일상에 베어나오도록.



유능정미



서대전 사거리 공원



둔산 아파트단지